

115차 CBMC 조찬기도회 23/04/2013

독서나눔 : 이강천

도서명 :더있다 (이태형지음규장출판)

저자는 국민일보의 선임기자이자 종교국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 플러신학교에서 신학(M.Div.)을 공부하였고 기독교연구소장으로 일하는 등 오랫동안 전문 언론인과 신앙인의 길을 걸어 왔다. 본서는 저자가 취재하며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로서 특별히 만나왔던 10분의 목회자,저술가와의 이야기를 신앙,교리,현실 등에 비추어서 풀어내고 있다. 특히 저자는 한국교회를 포함한 현대 기독교의 종파적인 편협성(복음주의,은사주의,자유주의 등)에 비추어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길을 소개한다.

#### 1. 달라스윌라드- 복음주의의 거성으로 "하나님의 몰락"/"잊혀진 제자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면서 현대 크리스천들은 오로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필요로 하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비 크리스천들이크리스천들에게"너희들의 신앙을 삶으로 보이라"는 요구에 대해 철저히 선하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변화된 삶을 살라고 진단한다.

#### 2. 리처드마우-플러신학교 총장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의 사명으로 가정과 정치 일터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시민교양을 갖춰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 3. 마이크 비클- 캔자스시티의 "국제 기도의 집" 대표

스무살 이전부터 성경과 5,000여권의 성경관련 서적을 독학으로 공부한 끝에 목회자가 되었지만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캔자스시티에 한주에 50시간 이상 기도사역을 하는 풀타임스텝을 1,000명이상 두고 있는 국제 기도의 집을 운영하며 미국 및 전세계에서 찾는 특별한 곳이 되었다. 흥미롭게도 1982년 여의도순복음교회의오산리기도원을방문해거 경험한 뜨거운 방언기도로 인해 국제 기도의 집 또한 예언과 치유사역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렇지만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예언과 치유사역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행 경계하기도 한다.

### 4. 유진 피터슨- 현대 기독교계의 현자라 불림 "메시지","한 길 가는 순례자"

목사에게 맡겨진 영혼은 한 사람마다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야 함. "목회란 거칠고 외로운 빈 들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찾는 과정이다.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살짝 열린 하늘나라를 조금 보고 기뻐하며 춤추는 것"

많은 책을 보지 말고 많은 일을 하지 말라며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 5. 빌 존슨-캘리포니아주레딩시베델교회

현대판 사도행전의 역사가 끊임 없이 나오는 놀라운 은사의 기적이 있는 교회로 교회가 속해 있는 레딩시의 분위기마저도 변화시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흉내 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신학 그 자체이기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도 없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픈 소망으로 출발하다.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한 세계로 초청받은 자로서 '닫힌 하는 문'이 아닌 '열린 하늘 문'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

상기한 다섯 편의 대담 뿐 만 아니라 뒤 부분의 5편까지도 저자는 물론 나에도 도전과 혼란을 주는 내용이었다. 저자조차도 강한 은사주의자를 '장풍'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소림권법을 쓰는 신비주의자처럼 생각했던 측면이 있기에 한권의 책에 소개된 다양한 종파(?)의 그것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스승이며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던 가마리엘도 예수를 이단의 우두머리로 공격할 때에도 그는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고민 끝에 예수를 풀어주려 했으며 일설에는 추종하였다고도 한다.

과연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누가 정확히 알 것이며 또 그 길이 한가지뿐인지 여러 가지인지 어떻게 알 것인가? 오늘날 각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초대형 교회, 소위 뜨는 교회 들이 있지만 초대교회들은 이름 없고 평범한 크리스천들의 손으로 세워지고 사도들은 나중에 가서 신앙의 순수성을 확인하고 교육했을 뿐이다. 하비콕스(미국의신학자)도 기독교의 특징이 기동성과 무명성에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우리 또한 엄숙하고 경건함을 배경으로 적당히 현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도 바로 옆에 놀라운 안수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어떻게든 머리를 밀어 넣고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겠는가? 내 병을 고쳐주고 마음의 고통을 없애 주고 게다가 물질의 축복까지 내려준다면 또 그 목회자가 번듯한 학교를 마치고 인물도 잘 생겼다면 하나님의 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제자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때로는 성경구절 하나씩 따져 가기도 하고 봉사 속에 특히 네 이웃,형제가 어려울 때 손을 움켜지지 말고 도우라는 말씀 속에 살다 보면 가끔은 예언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며 방언을 하며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배우고 전하고 만나고 싶다.